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속보: 2012년 11월 1일

CUOMO 주지사, 주방위군이 허리케인 SANDY 피해 지역에 1백만명 분의 음식물을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FEMA와 함께 주방위군이 허리케인 Sandy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뉴욕주민들에게 1백만명 분의 음식물과 생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Rockaways를 포함해 Brooklyn과 Queens의 피해지역인 Lower Manhattan 일부 지역으로 음식물 배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기 없이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뉴욕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식량과 생수입니다. 우리 주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JFK로 떠난 첫 번째 비행기는 FEMA에서 보낸 것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저희가 요청한 식량과 사람들이 실려 있습니다. 뉴욕주는 허리케인 Sandy에 대응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계속해서 배치할 것이고,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뉴욕 시민들의 필요 사항과 우려에 맞춰 일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FEMA와 주방위군은 뉴욕시와 주요 비영리 기관과 함께 배급 지역을 정하고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에 중간 대기소를 세울 것입니다. 주방위군 병사는 허리케인 Sandy가 뉴욕주를 강타한 후 전기 없이 지내온 뉴욕 시민에게 가가호호 방문하여 약 30개 트랙터-트레일러 분량의 음식물과 생수 배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방위군 병사와 FEMA 관리들은 이들 지역 사람들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과 불편사항도 점검할 것입니다.

뉴욕주 국토안보부, FEMA, 주방위군은 뉴욕시 및 비영리 파트너와 함께 이 지역에 음식물이 골고루 배급될 수 있도록 이들을 운송하느라 불철주야 일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오후 늦게 Manhattan에 있는 배급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